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개최

항만·SOC·수소환원제철·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논의

광양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광양시장, 광양시의회 의장,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교육 분야 통합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환경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수소환원제철 및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벤처·스타트업 특

구 지원 ▲글로벌 통신망 연계를 위한 육양국(케이블 랜딩 스테이션) 구축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으며,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짚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라남도지사는 항만 분야와 관련해 광양항을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광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별법 반영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참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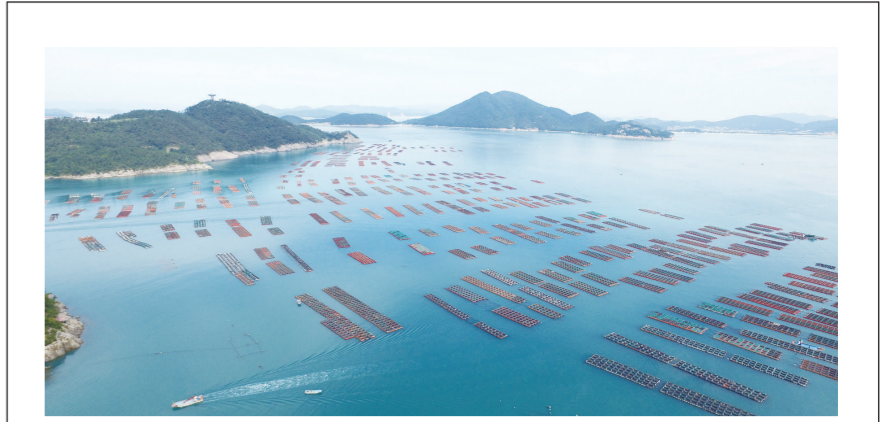
광양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광양시는 특별법에 광양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과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광양의 주요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가 실질적으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군, 해조류·전복 산업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우량 종자 및 양식 기술 개발, 인공지능 수산양식 시스템 구축 등

완도는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다시마는 지난해 전국 대비 71%를 차지하는 38만 톤, 미역은 56%를 차지하는 12만여 톤을 생산했다.

특히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다도해 해역의 안정적인 해역, 풍부한 영양염 등으로 해조류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생산 기반, 축적된 양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김 양식의 경우 육상 채묘를 확대하고, 미역과 다시마 등은 가 이식이 없는 양식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이상 해황에도 안정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 우량 종자 개발 사업과 더불어 김 양식 시 산 처리를 하지 않고 높은 수입으로 규조류를 제거하여 영양염

을 흡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성 물질이 있는 감태 양식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고, 성장 단계별 성분을 분석하여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사용하는 전복 양식 시 먹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공급 사업, 유망 양식 품종(감태·곰피) 종자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는 전국 대비 70% 이상의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이다. 전복 가두리 및 광어 양식장(육상)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질 센서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수온, 용존 산소 등 해양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 착수

나비대축제 준비 박차... 안전 확보 위해 일부 출입 통제

전남 함평군은 "내달 2일부터 2026년 함평나비대축제 대비 함평엑스포공원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함평엑스포공원 시설물을 정비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나비의 문·황소의 문 게이트 교체 ▲보행로 정비 ▲천수공간 개선 등 함평엑스포공원 이용 환경 전

반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내달 2일부터 오는 4월 나비대축제 개최 전까지 일부 추진하며,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축제 기간은 중지하고 나머지 공정은 축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과 황소의 문 출입이 통제되며, 방문객은 주제영상관 입구를 통해 공원에 입장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엑스포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함평나비대축제 준비를 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이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가 스포츠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 최초로 전남 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며 조성한 장성호 체육공원에 체육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만 9800㎡ 부지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사위장 등을 갖추고 있는 장성호 체육공원은 잘 관리된 시설과 맑은 공기 등

장성군 장성호, 스포츠 관광 명소로 새롭게 조명

원주고 야구팀 동계 전지훈련... 파급 경제 효과 1억여 원 이룰 듯

탁월한 환경을 갖춰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이 높다.

최근 들어선 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찾기 어려운 데다, 꾸준한 상승 중인

국내 야구 인기 덕분이다.

이달 6일부터는 원주고등학교 야구팀 30명이 장성호 체육공원에 동계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선수단은 2월 5일까지 장성에 머물며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군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7일 훈련장을 방문한 원주고등학교 선수들을 격려한 김한중 군수는 "전국 단위 조정 경기가 열리는 장성호와 전지훈련 최적지" 장성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곡성군 농산물 가공창업 거점, '맛다곡성 협동조합' 정기총회

전남 곡성군은 지난 27일 관내 소재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법인인 '맛다곡성 협동조합'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협동조합 조합원 20명과 곡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과 상품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운영 규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신규 조합원 승인, 이사장 사임 및 선출, 운영규정 개정안 상정과 함께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사업 추진을 방향 등이 있다.

또한, 곡성군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 가공제품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가공교육과 제품개발, 상품화 단계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향과 참

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맛다곡성 협동조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과 공동 상품화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농의소득 창출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은 정기총회를 계기로 새롭게 구성된 협동조합 임원진은 조합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과 상품화가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업인 가공 창업과 상품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가공 창업에 도전하고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은 27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보조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절차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흥군과 장흥문화원이 협업해 마련한 자리로, 관내 문화예술·문학 분야 23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장흥군-문화예술단체 '원팀 행정' 구축... '보탬e' 활용 교육

23개 단체 참여,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보탬e' 활용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흥문화원 장한 과장이 강사로 나서 단체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투명한 정산 및 실적 보고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시연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보조금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과 문화예술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팀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단체들이 체감하는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 내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삶은 버리고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뜻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삶은 버리고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뜻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